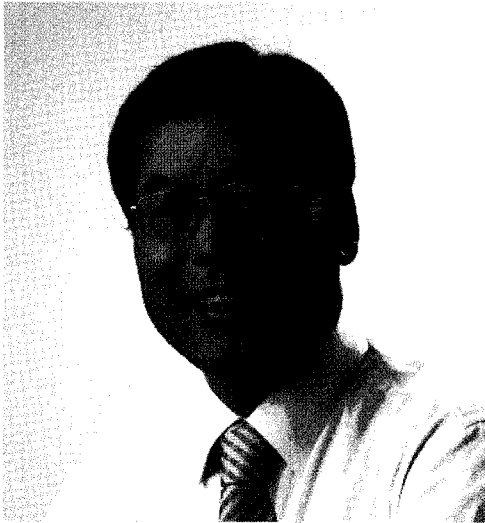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rchitecture



김 주 영

영주 시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미국 미시간대(경제학 석사) / 제16회 행정고등고시 / 국무총리실 / 경제기획원 / 부총리 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재정경제원 / 기획예산처 월드컵조직위 인력물자국장, 대구 울산 운영본부장, 이사관 / 서울특별시 경영기획단장 / 민선4기 영주시장 / 중부 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장 /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장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 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 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 할 역량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금껏 수없이 찾아 가고 불려(?) 다니던 행태가 머지않아 진정한 '실력'으로 그들 스스로가 건축문화의 큰 가치를 위해 우리를 찾아 올 기대도 해 본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린다.

건축기본법 공포에 따라 건축·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실행, 평가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협회는, 각 지자체의 건축·도시기본계획의 이해, 건강한 제안과 평가, 그 실천적 협력과 자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을 함께 도모해야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절실하다.

이러한 공익적 취지에 따라, 남 먼저 '디자인관리단'을 조직하여 건축, 도시의 실효적 발전을 꾀한 영주시를 방문하여 시장님과 함께 그 지역적 특성과 건축·도시기본계획, 그 실천과정(상황)과 평가 사항 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관련 자료의 홍보 및 이해를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와 관심, 다양한 제안과 협의로 상생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7월 13일 오전 한산한 중앙고속도로의 빗줄기는 주의력의 깃을 세워줄 만큼 차창을 즐기게 때렸다. 영주시청으로 달리는 길은 수려한 소백산맥의 깊은 영혼을 만나는 카페트처럼 울창한 숲속으로 한없이 파고들었다. 2시 30분 약속 시간에 맞추어 시장실에 들어섰다. 인자한 선비처럼 포근한 웃음 뒤로 정갈한 시장집무실이 오랜 친지의 사랑방처럼 넉넉하였다.

시인이라 그런지 김주영 영주시장의 명함에는 영주시의 상징인 소백산의 이미지와 정감 있는 글귀 '소백산 숲바람, 육십리 죽령고개, 그리운 그곳, 영주'가 동양화처럼 인상적이었다. 중앙부서에서 책임 있는 직무를 고루 수행한 분이라 그런지 건축 전반에 탁월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김주영 시장님은, 무엇보다 영주시에 디자인관리단을 신설하여 영주시민의 독창적인 문화도시 디자인을 진두지휘하고 있었고 그 진솔한 이야기가 소백산 숲바람처럼 가슴을 적셨다.

박찬정: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 반갑네요. 영주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 귀한 기회를 주신만큼 시장님과 허심탄화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공직 활동을 위한 건강 유지 비결이 있으신지요?

김: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고, 또한 정감록의 10승지로써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박: '역동의 시절'을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살아오신 주거 형태의 변화는 어떠셨는지요?

김 : 그야말로 역동의 시절을 살면서 주거형태도 다양하게 변했지요. 어릴 때는 단독 주택에서 살았고, 30대에는 연립주택에서, 현재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김희곤 : 시대 상황에 따른 주거 형태군요. 살아오신 주거 형태 중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삶의 경험이 다양했다고 생각하시는 주거 형태는 무엇이고, 오늘날 주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김 : 어릴 적 조그만 안마당과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집이 약간 언덕밭이에 있었는데 멀리 가차 불빛에 의해 흰 외벽에 비친 나무 그림자는 나에게서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을 주었지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양택이나 음택 등 지형, 지세와 풍수지리를 따졌는데 저 지대의 수해 피해를 보면 주거지는 언덕위에 배산임수로 자리 잡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거형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전통 주거형태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형태도 편리성이 너무 강조되어 우리전통의 멋스러움과 넉넉함이 많이 없어진 것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박 : 혹시 실제로 건축 행위를 하시거나 구체적 경험을 하셨던 경우는 있으신지요?

김 : 개인적으로 건축을 직접해본 적은 없으나, 공적인 차원에서 옛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경복궁복원 등의 국가사업 예산 지원 시 최고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자원을 아끼지 않았지요. 도로, 항만 교통 등 SOC분야 예산을 6, 7년간 다뤄봐서 큰 그림을 그려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동호 : 그 때의 경험이 지금의 건축이나 도시를 생각하시는 밑바탕이 되신 것 같네요.

박 : 살아오시면서 건축 행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 : 건축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비교적 많습니다. 저는 건축이 시민들의 사고와 행동패턴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공공기관 건축물을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나름의 성과도 냈다고 봅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디자인을 새롭게 하니까 기존 관행과 마찰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민 모두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초등학교는 한때 폐교위까지 갔으나 학교환경이 개선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직접 당시의 상황과 계획 추진에 대해 스케치를 하시면서 설명하심)

희 : 연속으로 시장에 파선 되셨는데 그 제의 근거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 : 지난 4년 동안 시장으로써 열성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 주로 예산이나 행정 분야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관리단'을 만드시고 전문인을 영입하신 배경은 무엇인지요?

김 : 우리나라 도시,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디자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색이 없는 회색도시-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자체가 문화와 환경적 측면에서 독특한 개성을 가져야 되고 사람이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학적, 건축학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예술적인 측면, 친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제대로의 도시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더군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서 영주 전체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인적자원의 한계, 제도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시계획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시키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마침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영주를 사례로 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 보았습니다만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영주시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관리단을 만들었습니다.

희 : 선구자로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꾸준히 잘 해가시기를 저희들도 다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외국 도시나 건축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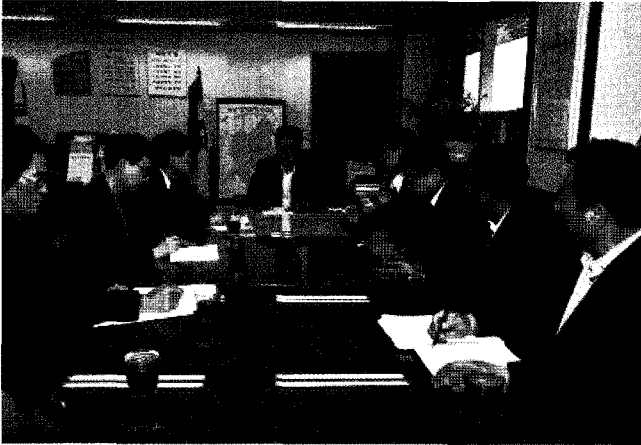
김 : 영국 옥스퍼드대학 Christ Church 칼리지 다이닝홀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도바닥이 수 백 년 동안 닳아서 10cm정도 홈이 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더군요. 영국인들이 전통을 존중하고 역사를 중요시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 : 건축사의 직능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 : 건축설계와 감리,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친절히 보여 주신 관련 자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 그리고 건축공학적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하는 직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 : 그리 말씀해 주시니 반갑기도 하지만, 현 건축사 업계의 상황이나 우리 사회의 문화 의식이나 사회적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느낌입니다. 분명 이제는 근본적 변화를 위한 건축계 내, 외적 재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 영주시는 현재 도시형 공동주거와 전통 건축, 단독 주거 등이 대도시와는 다른 구성으로 혼재 되어 있는데 미래 바람직하거나 변화될 것으로 보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김 :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아파트보다는 자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로의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삶의 질의 높아지면서 편리성을 넘어 개성을 살려내는 다양한 주거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박 : 그럼, 그와 연계된 도시·건축 정책 중 제일 중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김 : 건축정책은 건축사와 건축주의 개성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정책은 각 도시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아울러 사람을 우선시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박 : 저희가 YTN에서 기 방송된 홍보물 CD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의 주제가 건축의 공공성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드신 학교 개선 사업이나 담장 없애기, 인도의 확보 등 공동체성, 혹은 공공성 위주의 시책을 펴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최 : 전통마을인 '무섬마을' 운영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김 : 영주시의 대표적인 전통마을인데 옛 모습을 많이 잃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에 와보니 집안의 작은 전통 가재도구나 유물들은 모두 없어지고 연자방아나

디딜방아, 소여물통, 사람 키만한 큰 장독대 등 큼직큼직한 것만 남았었습니다. 다시 10년 후 그것마저 다 없어지고 전통 한옥들은 다 쓰러져 가고 있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5년 전부터 무섬마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 오래된 고택은 고택대로, 시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것은 적절히 대응하여 서로 조화로운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진정 가치 있도록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건축을 기술적 종합만이 아닌 창작 행위로 보시는지요?

김 : 네. 건축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결정하는 구조물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심성과 품격을 나타내는 창작행위로 봅니다. 건축사의 예술성, 창의성이 살아나면 우리 삶의 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지요.

박 : 그럼 '좋은 건축'이란 어떤 것이라 보시는지요?

김 : 좋은 건축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지고 역사문화도 녹아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이 살기 편하고 다양한 체험이 일어나는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 그런 건축, 환경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김 : 훌륭한 건축사, 건축자재, 건축제도 등이 공존해야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좋은 건축을 남겨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보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한다는 예술가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 주로 직접적 행위 주체를 말씀하셨는데, 주체와 함께 그를 키워 낼 문화, 사회적 바탕, 법/제도, 정책이나 행정적 인프라의 개선도 시급한 사항이라 여겨 집니다만...

김 : 그렇지요. 저도 행정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고민도 해봅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함을 느끼지요.



무섬마을 전경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

박 : 우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반갑고 고맙습니다. 만약 건축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제일 앞세울 가치나 희망 사항은 무엇입니까?

김 : 우리 옛 선조들은 자연을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축을 했어요. 자연과 어우러지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건축을 했으면 합니다.

박 :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진흥 행사나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시 차원에서의 참여의사가 있으신가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중 우선 검토과제(제안)에서의 건축문화행사 내실화(2010년~2014년) 항목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실현,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 도입 등 행사 효과 극대화(건축문화진흥)를 추진하지는 취지인, 관, 민이 함께 하는 자발적 포럼에서 가능한 기획(국토부가 작성, 비용 지급 예정)을 기 논의 중, 예를 들면 시민참여 파빌리온, 어린이건축 UCC, 주민참여형 마을단위행사, 건축문화유산답사 등이 될 수 있음)

김 : 당연히 참여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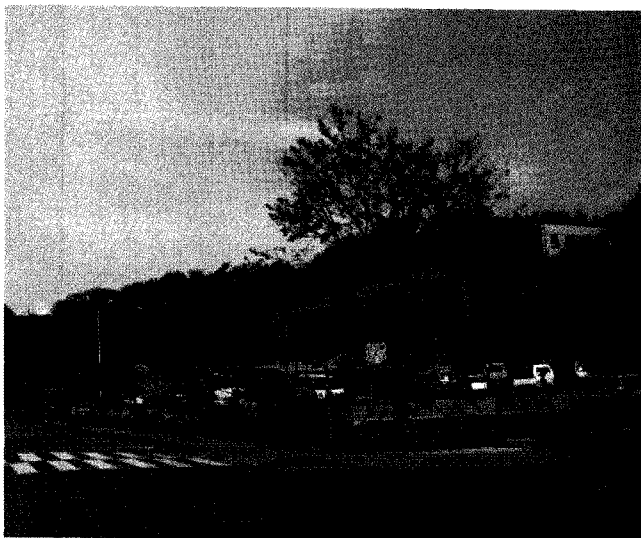
박 : 지금까지는 건축의 생산적 관리 위주의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를 포함한 '전 생애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귀 시의 정책적 기준이나 방향 설정 여부는 무엇입니까?

김 : 전 생애적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전통건축물인 목조 건축물도 잘 관리하면 몇 백 년 몇 천 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건축보다도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건축물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 :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행정협의체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 : 사회나 중앙정부, 그리고 건축사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시다면?



영주시청 - 보건소 담장터 허물기

김 : 중앙정부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적, 창의적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입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지금 설계용역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건축의 예술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도 재능의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건축사들이 중소 도시의 공공디자인 관리에 참여한다면 멋진 도시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최 : 저희들도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생산 주체는 주체대로 행정이나 관리층은 관리층대로 힘을 합친다면 건축/도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 : 영주시의 지역적 특성이나 대표적 건축, 혹은 장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김 : 우선, 최고의 목조건축물인 무량수전이 있는 부석사가 있지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조사가 창건한 화엄종찰 부석사에는 무량수전 외에도 석등, 조사당벽화와 같은 국보와 보물, 유형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무량수전 앞에 펼쳐진 자연경관을 품안에 끌어안은 건축사의 상상력은 가히 국보급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오늘 시간이 되면 꼭 찾아보세요. 제가 꼭 추천합니다.

최 : 건축을 전공한 분이라면 부석사를 보지 않은 분이 있을까 싶지만, 그냥 가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만큼 이해하였느냐가 문제겠지요.

박 : 홍보하고 싶으신 지역적, 문화적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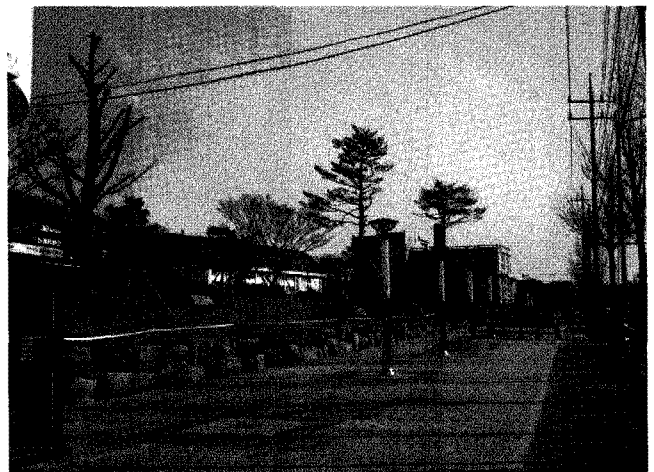
김 :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청정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는 주산인 '소백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고장으로 산소용존량이 2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깨끗한 공기와 G20정상회의에 공식응용수로 공급될 만큼 맑은 물(소백산수)이 있죠. 정감록의 10승 중 제1승지로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명품 농 특산물과 먹을거리가 풍부한 고장입니다. 영주는 일조량이 크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양질의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어 특산물이 많은 고장입니다.

청정한 환경에서 생산된 풍기인삼, 영주사과, 영주한우, 단산포도 등 모든 특산물의 품질이 우수하여 명품중의 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풍기인간이 있습니다. 풍기인간은 목재펠트에서 추출한 식물성 천연 섬유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에어컨 섬유라 불리어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영주는 좋은 먹을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한우고기는 어느 음식점에서나 좋은 품질을 맛볼 수 있고, 인삼의 효능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풍기삼계탕과 풍기인삼갈비도 건강식으로 좋으며, 웰빙 음식인 순흥메밀묵밥과 특별한 음식으로 약선요리도 추천할 만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산채나물로 만든 전통 비빔밥 골동반과 선비정식은 영주의 향토음식으로 개발하여 인기를 얻어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주문어, 생강 인삼 도넛, 고구마빵 등은 영주에 오시면 꼭 한 번 맛보아야 할 먹을거리입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우리나라 역사를 관통하는 선비문화의 뿌리인 고장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을 새로이 밝힌 곳이 바로 영주입니다. 통일신라의 혼란한 시대를 아우른 화엄의 종찰인 천년고찰 부석사가 있고, 최초의 시역서원인 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영주초등학교 공원화사업

수서원은 500년 역사 속에서 4,500여명의 선비를 배출하고 조선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 선생을 비롯하여, 조선 500년의 통치철학을 기획하고 만든 정도전 선생 등 수많은 선비들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또한, 체험관광지로 최적지입니다. 요즘 관광 패턴이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배우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주에는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전통마을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좀 더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음미하면서 보시면 관광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비촌을 비롯하여 현대적 선비정신을 배우는 교육의 장인 선비문화수원원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의 자연, 문화,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축제가 계절마다 열리고 있어 참여하신다면 더없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말이면 푸른 주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소백산의 철쭉을 배경으로 철쭉제가 개최되고,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정통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초에 열리는 영주풍기인삼축제는 100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주는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관과 선현의 일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과 문화, 특산물을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축제, 그리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입맛 돋우는 향토음식 등 영주 관광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궁전맨션 앞 공원화사업

박 : 홍보를 위해서는 따로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의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공청사 건축 중 제일 먼저 개선하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김 : 두부조각 같은 건축물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상징성과 개성이 있는 청사 건축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도 해보고도 싶고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나 패시브 하우스 같은...

박 : 이제 마지막으로, 현 건축·도시기본계획의 핵심 사항 무엇입니까?

김 : 하나로 말한다면, '전 도시의 공원화'라고 하고 싶네요. '걸어서 5분 안에 녹색공원이 있는 도시' 이 말은 영주시 건축·도시계획의 미스티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자연과 고품격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녹색공원으로 디자인 해 보고 싶습니다.

박 : 시장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사람, 문화, 자연이라는 주제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예상했던 시간을 넘겨서까지 열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라기 보단 마치 한 세미나를 마친 기분입니다. 저희 모두 영주시의 발전과 시장님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영주시의 미래의 비전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김주영 시장님의 설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영주시에 깊게 드리워진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감명 받았다. 이제 디자인이란 화두는 단순히 포장지를 바꾸는 외형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고 미래의 먹거리이자 생존수단의 단계로 진화하였음을 시장의 디자인정책과 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김주영 시장님이 선장인 영주시가 불확실한 미래의 폭풍을 뚫고 21세기 생태관광도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김희곤/최동호

· 인터뷰 참여 - 영주시 : 조준배 디자인관리 단장/정태호 도시디자인과 과장/안창주 공공디자인 담당

- 본협회 편찬위원 : 박찬정 위원장/최동호, 김희곤 위원

- 지회 : 전상훈 경북건축사회 회장/조한웅 사무국장/이희대 영주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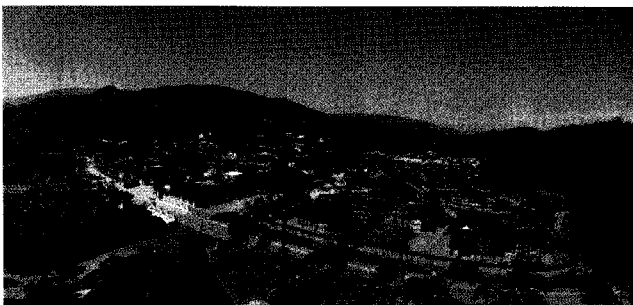
영주시의 정신문화

문화의 본질적 참된 형태가 필연적으로 정신성을 갖추어야 한다면, 이 정당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내적 욕구 때문이다. '정신의 힘'은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고자 하는 미적 충동이기도 하다. 해겔은 "정신은 한시도 쉬는 일이 없이 끊임없는 점진적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영주라는 멋진 땅은 전통의 숨결이 여기저기에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보통의 도시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고유한 정신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해 글로벌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도시는 그 장소(도시적 정신공간)가 갖는 주체성(아이덴티티)를 갖춘 다음, 그 후에 실체성을 드러내는 프로세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시들은 당장의 현실적(관광적) 프로그램에 연연하기도 한다. 도시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차분한 전개과정을 통하여 그 품격을 만들어 가면 미학도시라는 성숙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영주 도시문화에서 선비문화라는 것도 모두 내면적 정신문화를 그 기초로 하는 말이며, 이제는 그 기쁨을 향유하고자 하는 하나의 축제로서 당당한 <문화예술품>으로 완성되었다. H.마루쿠제도 "문화의 미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면적 아름다움이며, 그 내면으로부터 외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영주의 아름다운 예술품은 뮤지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귀하게 여기저기에 존재한다. 특히 성혈사 나한전의 꽃살문(문살에 꽃무늬를 새겨 만든 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예 작품으로서 특별히 꽃살문의 가운데에 있는 어간(御間)문은 통판투조 연지수금꽃살문(널판에 꽃나무나 기타 무늬를 통째로 새겨 문틀에 끼운 것이다. 투조(透彫)된 디자인은 연꽃, 물고기, 자라, 게, 물새 등으로 연못의 세계를 나타낸 붉은 스케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미적관조는 심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마치 손으로 잘 빚은 도자기와 같은 이 어간문의 미적 아이디어는 이 세상에서 구경하기 힘든 맑은 <영혼의 문>처럼 보인다.

정신문화의 참 모습을 드러낸 영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편적 문화의 구체성을 표현함은 물론, 이제는 세계정신(Weltgeist)을 드러냄에 있어서 발양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영주는 <관광8경>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그 내용은 <부석사/소수서원(선비촌)/소백산/무섬마을 회방폭포/죽계구곡/죽령옛길/소백산풍기온천>을 포함하고 있다.



선비촌



부석사

영주 시장의 글 중 부석사 <안양루의 신비>에서는 "불심이 깊은 사람만이 공포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전통미학도시로서의 영주시를 바라보면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을까? 부석사(신라 문무왕 16년(서기 676년)에 의상조사가 창건)는 국보가 5점이나 된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오래된 목조건물 무량수전을 제목으로, 해국 최순우 선생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라는 명저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글 가운데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위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고 하면서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자연 경관에 대한 한국인의 "뛰어난 안목"을 칭송하며, "사무치는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영주시가 초대하는 <선비문화축제>의 글(인사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자연의 정취와 고즈넉함이 살아 있는 곳인 무섬전통마을, 선비의 숨결이 살아있는 선비촌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을 선사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축제 기간 동안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비의 멋과 풍류,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제는 영주시의 말대로 "북소리 세상을 울리다"의 자신만만함으로 세계를 향하고 있다. 원래 축제에는 "어디 한번 놀아보세"(탈춤의 미학, p.249)라는 '자유로운 행위'(요한 호이징하)가 있다. 한국적 탈춤에는 춤에 노래와 대사를 곁들여 연행하는 것으로서 실조(失調)의 미학이 있다. 또한 삼위일체의 코레리아(Chorea-원래 집단 춤을 뜻하는 코로스(koros, 합창)에서 유래)는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언어와 제스처 멜로디와 리듬으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예술적 형식은 나중에 춤, 노래, 음악으로 분화되는 기본적 예술이 되었다. 영주시는 <선비문화축제>를 예술로 승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신이 소유하는 최상의 규정성으로서 자유성과 더불어, 소백산 자락의 청정도시 영주는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를 비전으로 한다. 이제 최고의 향기를 지닌 명품도시로서,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고양시키며 또한 예술도시로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 <글 최동호>